

### 대구1호선 하양~영천 연장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경상북도는 5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금호)연장 사업이 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읍까지 약 5.66km 구간에 총 사업비 2341억 원을 투입해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

2021년 7월 고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광역철도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로 통상 12개월간 이뤄지며 경제성평가(B/C),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AHP)에서 0.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사업추진을 최종 확정한다.

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6년 착공,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예타 통과로 랫트파크 영천,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 대구대 학생을 비롯한 지역민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타 통과는 그동안 이철우 지사가 이만희 윤두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적극 협력해 중앙 정부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시행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득한 결과로 평가한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은 4일 하회마을 진입로 가로경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안동시

### 하회마을 진입로 산뜻해졌다 안동시 풍천면 경관 조성사업

경상북도 안동시는 풍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일 하회마을 진입로 가로경관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풍천면은 이번 사업으로 퇴색한 옹벽에 도색을 하고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을 대표하는 상징 이미지 등을 제작·설치했다.

가로경관 조성 사업으로 하회마을 진입로 약 100m 정도 되는 옹벽에 바탕색을 칠한 후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각각 상징하는 하회탈, 선비 이미지 및 이정표를 제작·부착하고 그위에 코팅을 했다.

기존 로열웨이 상징 조형물과 이번 도색 이미지가 조화를 이뤄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안동 풍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풍천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동의 관광 이미지를 더욱 각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풍천면장은 "올해 나머지 진입 구간에 옹벽 도색을 하는 등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안동소주 품질 도지사가 보증합니다”

### 경북 TF팀, 고급화·세계화 위해 '품질인증기준' 마련 BI·공동 주병 도입 역사성 부각·명주 이미지 극대화

경상북도는 안동소주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세계화를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경북도가 운영하는 안동소주 전담팀(TF)은 업체, 대학,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도지사 품질인증기준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품질인증은 안동시에서 생산한 곡류 100%를 사용하고 안동시 소재 제조장에서 생산한 증류식 소주로 △원료 쌀 품질 기준(수분 16% 이하, 찌라기 7% 이하, 이물 0.3% 이하 등) △증류원액, 정제수 외 첨가물 사용금지 △타 양조장 반입 증류조원액 사용금지(OEM) △알코올 도수 30% 이상 △6개월 이상 숙성(오크통 숙성 포함, 오크집 사용 금지)을 기준으로 한다.

품질인증 절차는 생산자가 인증신청을 접수하면 안동소주협회에서 검토와 인증심사를 마친 후 경북도가 운영 지원하는 품질인증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거쳐 도지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통주 시장 규모는 1629억 원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혼술, 혼술 열풍을 타고 2021년 941

억 원보다 7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전통주 시장 규모도 2022년 194억 원으로 2021년 143억 원보다 35% 커졌다.

경북도는 지난해 초 '안동소주 세계화'를 선언한 후 스코틀랜드의 수출 상품인 스카치위스키와 같이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안동소주 국내 매출액은 167억 원으로 2022년 134억보다 25% 성장했고 수출액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3년 7억 원으로 증가했다.

안동소주는 750년 음식 유산으로 스카치위스키보다 역사가 200년 앞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주로 세계시장에서 요구하는 K-위스키로 거듭나기 위한 경상북도와 기업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안동소주의 국내외 주류시장 공략을 위한 기초작업인 브랜드 정체성(BI)과 공동 주병을 도입해 고유역사성 부각과 명주로서 이미지를 극대화해 업체 간 상호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안동소주는 주로 전통적 도자기



경상북도는 안동소주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세계화를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스코틀랜드 스카치위스키 양조장을 방문한 이철우(오른쪽) 지사. 경상북도

병에 담아 판매했으나 이 같은 브랜딩은 세계화 전략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업체 등 관계자의 분석에 따라왔다.

특히 트렌디한 디자인의 주병과 안동소주의 차별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BI를 도입해 참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마다 서로 다른

제품 특징을 라벨로 구분짓도록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안동소주 제품과 잔 등을 묶어 파는 세트 상품 개발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해 국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이철우 지사는 “안동소주의 역사는 스카치위스키보다 200년이나 앞섰고 중국의 백주 등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주다”며 “안동소주의 고급화와 브랜딩을 통해 전통주 수출길 확대에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부산광역시 '등산로 DB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다. 일광산 등산로 안내판 NFC 태그. 기왕군

## 기장 일광산 등산로 DB 구축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 안전하고 편리한산행 지원... '스마트 등산시대' 활짝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관내 등산객들의 편의 증진과 등산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광산 일원 '등산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최근 관내 숲세권 확대에 따라 등산 인구가 증가하고 스마트기기가 일반화됨에 따라 등산로 노선 및 관련 시설을 DB화하는 '등산로 DB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작년 12월 말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광산 일원을 대상으로 등산로 노선과 등산로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사하고 안내판과 시설물에 관리표찰과 근거리통신망인 NFC 태그를 부착해 등산로 DB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등산로 이용객은 모바일 기기와 NFC 태그를 활용해 등

산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을 할 수 있다.

군은 등산로 DB를 활용해 등산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숲세권 확대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등산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며 “연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산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올해 달음산 일원을 대상으로 '등산로 DB 구축 및 관리계획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연차별 사업대상을 기장군 내 주요 등산로(철마산, 불광산 등)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창창 기자 jckim@skyedaily.com

## 김진태 지사, CES 2024 참가... 수출 증대 '쟁걸음'

###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 핵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 보완... 도내 기업 진출 총력”



김진태(사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일부터 13일까지 4박 6일간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핵심 미래 산업의 성장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먼저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G-Frontier Project 추진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소매박람회인 CES 2024(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석한다.

박람회 주최측의 선정평가를 통과하여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기업은 총 10개사에서 그 중 3개사는 유레카 파크 한국관, 나머지 7개사는 디지털헬스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CES에 참가하는 도내 바이오 분야 기업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을 대상으로 도의 의료기기·바이오 헬스 등의 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4에 참가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술을 홍보하여 수출 확대를 이끌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현대자동차·LG전자 등 국내 대기업 부스도 방문하여 차세대 혁신기술을 배우고 도의 비전과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도의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가 인공지능(AI), 모빌리티로 우리 도의 핵심 미래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CES참관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도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라

고 밝혔다.

또한 추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자리를 옮겨 강원도 거주(캘리포니아) 도민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협력 기반을 다져 줄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 의료 수출 1호 병원'으로 불리는 CHA 할리우드 프레즈비테리언 메디컬 센터를 방문해 차바이오팀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도가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서던캘리포니아대와 오토의 협약식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 춘천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본격화

### 시민 릴레이 캠페인·사진전 등 개최로 열기 조성 전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전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캠페인 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응원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 유치 열기 조성해 나갔다.

범시민 릴레이 캠페인(1단계)과 시민과 함께하는 유치 활동(2단계)을 통해 유치 분위기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분야별 주요 단체의 춘천 유치 지

지를 통해 시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 부서와 유관기관 릴레이 스케이트 동아리 결성으로 스케이트장 유치 열의 의지를 더욱 뜨겁게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채로운 홍보 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이달 중 시청 로비에서 '춘천의 옛 스케이트 추억, 시민 사진전을 시작으로 주요 장소에서 사진전 순회 일정과 SNS 포도 챌린지 등 유치 열의 릴레이 행사도 펼쳐진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